

The Rai to Jesus

2018년 9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롬 10:14

- 우기의 끝자락에서,,,

9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매일 내리던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보니 지난 봄부터 시작된 우기가 서서히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가 5개월쯤 계속되었지만 방안 곰팡이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집니다.



라이족 마을의 젊은 부부



[학생모집을 위해 찾아간 동부 산간 마을의 삼 형제를 둔 가족과 함께]

- 차가운 기류를 마주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선교사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급된 비자 목적 외의 행위를 하게 되면 추방하게 되는 법이 지난 달 부터 발효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싱가포르의 한 가정이 쫓겨났고, 최근 들어 비자 연장을 까다롭게 하거나 거부되어 이곳을 떠나는 가정들도 생겨나고 있어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 라이족을 찾아서,,,

저희는 이곳에 온 이후로 특별한 계기를 통해 라이족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IMB 자료에 의하면 라이족은 약 100만명 정도가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 대부분은 힌두인들이며, 산간 지역에서 감자, 콩, 밀, 옥수수 같은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넉넉지 않은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사관의 즐거운
식사 시간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라이족 마을 사람들]

- 학사관을 열다

지난 6월 중순부터 학사관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열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아침 큐티와 저녁 시간 매일 40분 정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들을



[아침 큐티 시간]

통해 수많은 라이족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쉬었다가 언어선생과 함께 언어를 익히다 보면 하루해가 짧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복 주신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카트만두에서 제임스 정 & 글로리아 드림

-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학사관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잘 양육 되어 지도록
2. 학사관 운영이 방해 받지 않도록
3. 언어 습득을 잘 할 수 있도록